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간의 관계: 성격의 중재효과*

손 영 지¹⁾

박 성 연²⁾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성격과 양육행동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한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성격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보고, 어머니의 성격이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간의 관계에서 중재적 역할을 하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또한, 탐색적 수준에서 외향성의 하위요인들을 사교적인 외향성, 활동적인 외향성, 온정적인 외향성으로 세분화하여 양육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대상은 서울시 초등학교 5~6학년 아동(350명)과 그들의 어머니이다. 상관관계 및 회귀분석 결과, 첫째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양육스트레스나 신경증이나 외향적 성격과 상관을 보였으나, 상대적인 영향력에서는 어머니의 성격보다는 양육스트레스에 의해 더 잘 예측되었다. 둘째, 특히 어머니의 외향적인 성격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상호작용하여 양육행동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성격은 스트레스와 양육행동간의 관계를 중재하였다. 즉 어머니가 사교적인 외향성이 높고 학습기대로 인한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어머니의 온정·수용 양육행동은 높았다. 반면 어머니가 사교적인 외향성 및 활동적인 외향성이 높고, 자녀의 기질 및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허용·방임 양육행동은 높았다. 또한 어머니가 사교적인 외향성이 높고, 자녀의 기질로 인한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어머니의 거부·제재 양육행동은 낮았다.

주요어 :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성격, 신경증, 외향성

* 본 논문은 2010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의 일부임.

1)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 전공

2) 교신저자 :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E-mail: psy@ewha.ac.kr)

I. 서론

부모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성장·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특히 아동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국내외 학자들의 끊임없는 관심을 받아왔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양육행동과 관련된 사회인구학적 변인이나 환경적 요인(예: 어머니의 교육수준, 가정소득, 취업유무, 사회적지지, 결혼만족도 등), 양육행동과 아동의 특성 또는 발달간의 관계를 다룬 것이 대부분(현정환, 2007)이며 양육행동을 예측해 줄 수 있는 선행변인인 심리적 변인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Belsky(1984)에 의하면 양육행동은 결혼만족도나 사회적지지를 비롯한 환경적 요인이나 아동의 특성 뿐 아니라 부모의 인성적 특성에 의해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성격이란 인간의 정서, 사고방식, 적응방식 및 행동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Caspi & Shiner, 2006)으로 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성격을 5개의 구성요인으로 구분하고 있다(민경환, 2002). 즉 성격은 신경성, 외향성, 우호성, 성실성, 개방성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이 중 특히 불안, 적대감, 우울, 자의식, 충동성, 취약성을 특징으로 한 신경증과 온정, 사교성, 긍정적정서, 주장, 활동성, 자극추구로 구성되는 외향성은 부모의 양육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성격요인으로 연구되어왔다(Belsky & Vondra, 1993; Smith, Spinrad, Eisenberg, Gaertner, Popp, & Maxon, 2007).

신경증성향이 높은 사람은 대체로 쉽게 불안해지고 정서적인 안정감이 낮기 때문에 아

동에게 민감한 양육행동을 보이지 못한다(Smith et al, 2007; Belsky, Crinc, & Woodworth, 1995). 반면에 외향적인 성향이 높은 사람은 낙관적이며 사교적이고 활동적인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아동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온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인다(강영미, 2004; 김수진, 도현심, 2001; 박영애, 최영희, 박인전, 2002; 송현정, 김광웅, 2008; 전현진, 박성연, 1999; Metsapelto & Pulkkinen, 2003; Smith et al, 2007).

그러나 신경증적 성격과 양육행동간의 관계는 비교적 일관적으로 보고되는 반면, 외향적인 성격의 경우는 비일관적인 결과를 보여 어머니의 외향적인 성격이 반드시 자녀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나 바람직한 양육행동과 관련되지는 않는다는 점이 시사되고 있다. 예를 들어 외향성이 높은 어머니는 자녀에 대한 관심보다는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더 관심이 높아 아동에게만 전념하기 어려워며, 강압적인 양육행동을 보인다(Clark, Kochanska, & Ready, 2000; Kochanska, Clark, Goldman, 1997)고 보고된다. Smith(2010) 또한 외향적인 어머니는 자녀양육으로 인해 자신의 사회적 상호작용 기회가 제한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육에 있어서도 덜 만족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자녀에게 보다 지시적이고 통제적인 양육행동을 한다고 보고한다. 이렇게 불일치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성격을 측정하는 도구가 연구자마다 다른데 기인할 수도 있겠으나, 외향성을 특징짓는 행동특성이나 외향성의 구성요소의 복잡성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성격의 5요인을 측정하는 도구이자, 외향성의 다양한 하위요인을 포함하

는 도구인 NEO-PI-R(민경환, 2002)에서는 외향성의 하위요인으로 온정, 사교성, 긍정적정서, 주장, 활동성, 자극추구 성향으로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지만, Metsalpeto와 Pulkkinen(2005)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외향성의 일부 측면인 사회성이나 긍정적 정서만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Smith et al, 2007). 따라서 어머니의 외향적인 성격과 양육행동간의 관계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외향성의 하위구성요인들이 양육행동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Belsky의 가족과정모델(Family Process Model)에서 인지적 요소가 간과되었음을 지적한 Abidin(1990)은 양육자가 양육과정에서 지각하는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내외연구들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예측하게 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보고하고 있다. 즉 스트레스가 많은 어머니는 자녀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갖게 되므로 (Suchman & Luthar, 2001), 스트레스를 많이 지각할수록 자녀에게 강압적이고 거부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나타낸다(김미숙, 문혁준, 2005, 김현미, 도현심, 2004; 박성연, 전춘애, 한세영, 1996; 신숙재, 1997). 그러나 Lazarus와 Folkman (1984)의 상호작용 스트레스 이론(transactional model of stress)에 의하면, 스트레스는 개인의 성격이나 지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 성격적 특성은 부모가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며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거나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양육

자의 성격과 양육스트레스 지각간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안영희, 김연화, 한세영, 2008; 진순옥, 김영희, 2003; Gomez, Gomez, & Cooper, 2002)들은 주로 외향성과 신경증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성격적 특성은 특히 스트레스 지각정도나 스트레스 해소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외향성과 신경증 등 성격에 따라 개인이 지각하는 스트레스 정도는 차이를 보인다. 즉 대체로 외향성이 높은 사람은 주변의 정보를 기분 좋게 받아들이는 반면, 신경증이 높은 사람은 주어진 정보를 불쾌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Gomez et al, 2002). 같은 기질의 유아일지라도 어머니의 성격특성에 따라 자녀의 기질을 다르게 인식한다는 국내 연구결과들(안영희 외, 2008; 진순옥, 김영희, 2003)은 성격과 스트레스 지각간의 관계를 어느 정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같은 양육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쉽게 흥분하며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신경증적인 성격의 어머니는 부정적인 감정과 양육스트레스를 더 느끼게 되는 반면, 온정적이고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특성의 외향성이 높은 어머니는 양육스트레스를 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외향성과 신경증적인 성격특성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식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Lee-Baggley, Preece와 DeLongis(2005)에 의하면 신경증 성향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을 회피하는 수동적인 대처방식을 사용하거나 적대적이고 부정적인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극단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사용한다. 반면 사회적으로 관계지향적이며 온정적인 외향

성이 높은 사람은 가족, 친구, 직장동료등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거나 긍정적인 생각으로 상황을 재해석하는 문제중심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사용한다. 이러한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양육스트레스와도 관련이 되어 적극적인 대처방식을 사용할수록 양육스트레스를 적게 받게 된다(박진성, 신현정, 박애순, 2008). 따라서 어떤 성격인지에 따라 양육스트레스를 지각하는 정도와 지각된 양육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식에서도 차이가 나타나며, 이로 인해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도 다를 것으로 예측된다. 다시 말하면 외향성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를 덜 지각하며 보다 바람직한 방법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같은 정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외향성이 높은 사람은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더 많이 보일 것이다. 이와는 다르게, 신경증이 높은 사람은 양육스트레스를 더 높게 지각하며 부정적이고 부적절한 방법으로 해소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부정적인 양육행동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고찰을 종합해 보면, 어머니의 외향적인 성격특성이나 신경증적 성격특성 그리고 양육과정에서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는 양육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들에서는 유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어머니의 성격적 특성에 따라 양육스트레스 지각정도에 차이를 줌으로써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 시사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외향성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에 관해서는 연구에 따라 비 일관적인 결과가 보고되고 있어 외향성의 하위 구성요소에 따라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으로 시사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들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행동, 또는 성격과 양육행동 등 각각의 관계에만 초점을 두었을 뿐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성격특성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거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간의 관계에서 성격특성이 중재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규명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양육행동연구에서 중요한 성격특성으로 밝혀진 외향성과 신경증을 중심으로 성격 및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간의 전반적인 관계를 보는 한편, 성격과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탐색하고, 성격이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간의 관계를 중재하는지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또한 외향성의 구성요소에 따라 양육행동과의 관계에 차이가 있는지를 탐색적 수준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성격 및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성격과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간의 관계는 어머니의 성격에 의해 중재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에 위치한 2개 초등학교로부터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해 자기보고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연령인 5, 6학년 아동 350명과 그들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대상 아동의 평균연령은 12.5세였으며 어머니의 평균연령은 41세이었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중학교졸업이 55.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고등학교 졸업이 40.3%, 대학교 졸업 2.0%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직업은 가정주부가 약 4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사무직이 16.0%, 판매직이 11.7%를 차지하였다. 자료수집과정에서 학교장으로부터 가정의 경제수준에 대한 자료에 대한 허가를 얻을 수 없어 이에 대한 자료는 없으나 어머니의 교육수준이나 직업수준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대상은 중·하류층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어머니의 성격 및 양육스트레스,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관한 질문지 척도로 어머니의 성격 및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질문지는 어머니가 보고하였으며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이 보고하였다.

어머니의 양육행동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Shaefer(1965)의 양육행동 모형을 토대로 박영애(1995)가 개발한 아

동용 양육행동 척도를 수정·보완한 김문정(2003)의 척도로, 온정·수용요인의 10문항(예: '내가 어머니에게 소중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하신다'), 허용·방임요인의 10문항(예: '내가 조르기만 하면 뭐든지 다 사주신다'), 그리고 거부·제재요인의 10문항(예: '나 때문에 속상하다는 말을 자주 하신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양육행동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Cronbach's α 에 의한 본 척도의 신뢰도는 온정·수용 요인은 .90, 허용·방임 요인은 .67, 거부·제재 요인은 .87이었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Abidin(1990)이 제작한 Parenting Stress Index(PSI)를 신숙재(1997)가 번역한 척도로 일상적 스트레스 요인 10문항(예: '내 생활에 방해가 되는 일들이 꽤 많이 있다')과 자녀의 기질로 인한 요인 8문항(예: '아이는 다른 아이보다 엄마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다'),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요인 9문항(예: '나는 아이에 대해 좀 더 친밀하고 따뜻한 감정을 갖고 싶지만, 실제로 그러지 못해 괴롭다'), 그리고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 요인 3문항(예: '아이는 내 기대보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속도나 느린 것 같다')으로,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에 의한 본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87이며, 하위요인에 대한 신뢰도는 각각 '일상적 스트레스'가 .63, '자녀의 기질로 인한 스트레스'가 .82,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

스'가 .76,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58 이었다.

어머니의 성격

어머니의 성격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NEO-PI-R(The Revised NEO Personality Inventory) (Costa & McCrae, 1992)을 우리 문화에 익숙한 언어적 표현으로 번역하여 타당화 작업을 수행한 안창규와 채준호(1997)의 척도 중 특히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밝혀진 외향성과 신경증(전현진, 박성연, 1999; Belsky & Vondra, 1993; Smith et al, 2007)만을 사용하였다. 원래 외향성 요인은 온정, 사교성, 긍정적정서, 주장, 활동성, 자극추구에 대한 6개의 하위요인으로 48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신경증 요인은 불안, 우울, 적대감, 자의식, 충동성, 취약성에 대한 6개의 하위요인으로 48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양육행동과의 일관된 상관관을 보이는 신경증적 성격은 그대로 사용하고 비밀관적인 상관관을 보이는 외향성 문항(48개)에 대해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을 위해서는 주성분 분석 및 varimax 회전방식을 사용하였으며 Scree plot을 기준으로 Eigen치가 1.0 이상인 3개 요인에 요인부하량이 .35이상이면서 다른 요인에 부하되지 않은 문항 31개 문항이 포함되었다. 외향성 1, 2, 3 요인은 각각 문항내용에 근거하여 사교적인 외향성, 활동적인 외향성 및, 온정적인 외향성으로 명명되었다. 외향성 각 하위 요인의 문항의 예로는 '나는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 좋다'(사교적인 외향성), '나는 매우 활동적인 사람이다'(활동적인

외향성), '나는 잘 웃는다'(온정적인 외향성)를 들 수 있다. 성격척도 각 문항은 5점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성격특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α 를 산출한 결과 신경증척도는 신뢰도를 낮추는 2개 문항을 제외한 46문항이 .91, 사교적인 외향성(12문항)은 .80, 활동적인 외향성(12문항)은 .71, 그리고 온정적인 외향성(7문항)은 .61이었다.

3. 자료수집절차 및 분석

서울시에 위치한 2개 초등학교로부터 학교장의 허락을 받은 후 교사를 통해 연구참여동의서와 함께 어머니용과 아동용 설문지(각각 430부씩)를 배부하였다. 배부된 질문지중 400부가 회수 되었으며 회수된 질문지중 일부 자료가 미비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를 제외한 후 350쌍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해서는 탐색적 요인분석 및 Pearson 상관관계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초분석으로 아동의 성별 및 학년, 어머니 연령, 학력 및 직업 등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학년만이 양육행동과 유의한 상관관을 보여 회귀분석에서는 학년을 통제한 후 분석하였다. 또한 회귀분석 결과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난 경우는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각 성격특성의 중앙치를 중심으로 각각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으로 구분하여 그래프화하였다.

III. 결 과

1. 어머니의 성격 및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간의 관계

연구문제 1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성격 및 양육행동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어머니의 자녀의 기질로 인한 스트레스 및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는 온정·수용 양육행동과는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여 어머니는 자녀의 기질이나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온정·수용 행동을 적게 보였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하위요인 모두는

어머니의 거부·제재 양육행동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여 어머니는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거부·제재 양육행동을 많이 보였다.

한편, 어머니의 신경증적 성격은 거부·제재 양육행동과만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외향성의 경우는 하위요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여 어머니의 사교적인 외향성과 온정적인 외향성은 어머니의 온정·수용 양육행동과는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그리고 거부·제재 양육행동과는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인 반면, 활동적인 외향성은 그 어떤 양육행동과도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외에도 어머니의 신경증적 성격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모든 하위요인과 정적상관을

표 1. 어머니의 성격,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과의 상관관계 (N=350)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양육스트레스											
1. 일상적 스트레스	-										
2. 자녀의 기질	.29***	-									
3. 자녀와의 관계	.47***	.61***	-								
4. 학습기대	.31***	.46***	.56***	-							
성격											
5. 신경증	.53***	.42***	.55***	.29***	-						
6. 사교적인 외향성	-.49***	-.42***	-.46***	-.30***	-.60***	-					
7. 활동적인 외향성	-.17***	.12**	-.03	-.02	-.11**	.21***	-				
8. 온정적인 외향성	-.38***	-.24***	-.42***	-.14**	-.55***	.47***	.30***	-			
양육행동											
9. 온정·수용	-.09	-.18***	-.24***	-.08	-.10	.13***	.07	.17***	-		
10. 허용·방임	.09	.00	-.02	-.05	.01	-.02	.05	.00	-.01	-	
11. 거부·제재	.12**	.17***	.22***	.11**	.18***	-.17***	-.04	-.18***	-.54***	.14***	-

* $p < .05$. ** $p < .01$. *** $p < .001$.

보였으나, 어머니의 사교적인 외향성과 온정적인 외향성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모든 하위 요인과 부적상관을 보여 신경증적 성격이 높은 어머니는 양육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한편, 사교적이거나 온정적인 외향성을 많이 보이는 어머니는 스트레스를 적게 느꼈다. 그러나 활동적인 외향성이 높은 어머니는 일상적 스트레스를 덜 느끼는 반면, 자녀의 기질로 인한 스트레스는 높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스트레스 내용에 따라 활동적 외향성과 스트레스와의 관계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표 1 참조).

2. 어머니의 성격과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연구문제 2인 어머니의 성격과 양육스트레

스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행한 결과, 변인들 간의 VIF 값은 1.20~2.45로 10 미만이었으며, Tolerance 값은 .41~.84로 그 기준값인 0.1 이상으로 나타나(황해익 외, 2008),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분석결과 표 2에서 보듯이, 어머니의 성격은 어떠한 양육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아니었다. 그러나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하위 요인 중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만이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어머니의 온정·수용 양육행동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beta = -.25, p < .01$).

표 2.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성격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력

($N = 350$)

독립변인	온정·수용		허용·방임		거부·제재	
	B	β	B	β	B	β
양육스트레스						
일상적 스트레스	.04	.03	.10	.14*	-.02	-.02
자녀의 기질	-.11	-.10	.01	.02	.05	.05
자녀와의 관계	-.31	-.25**	-.02	-.03	.16	.14
학습기대	.24	.08	-.13	-.03	-.04	-.02
성격						
신경증	.04	.11	-.01	-.03	.004	.01
사교적인 외향성	.02	.02	-.01	-.02	-.05	-.05
활동적인 외향성	.07	.06	.04	.06	-.01	-.01
온정적인 외향성	.18	.10	.01	.01	-.15	-.09
R^2	.08		.02		.06	
$F(df)$	3.67*** (8.349)		.899 (8.349)		2.84** (8.349)	

* $p < .05$. ** $p < .01$. *** $p < .001$.

3.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성격의 중재적 역할

연구문제 3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성격의 중재역할을 규명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학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에 따라 학년을 통제하고 양육스트레스 각 하위요인과 성격의 각 하위요인, 그리고 양육스트레스와 성

격의 상호작용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신경증과 달리, 사교적인 외향성과 활동적인 외향성은 스트레스와 상호작용하여 양육행동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교적 외향성과 온정·수용 양육행동간의 관계

어머니의 온정·수용 양육행동을 종속변인

표 3. 온정·수용 양육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사교적인 외향성의 위계적 회귀분석(β) ($N = 350$)

독립변인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학년통제	-.05	-.05	-.05	-.04
학습기대로 인한 스트레스(A)		-.08	-.05	.73*
사교적인 외향성(B)			.11*	.46**
A x B				-.76*
R^2	.002	.009	.02	.037
ΔR^2		.007	.015	.022
F	.79	1.49	2.33	3.27*
(df)	1. 348	2. 347	3. 346	4. 345

* $p < .05$. ** $p < .01$. *** $p < .001$.

주) 학년통제는 더미변수화 함(5학년=0, 6학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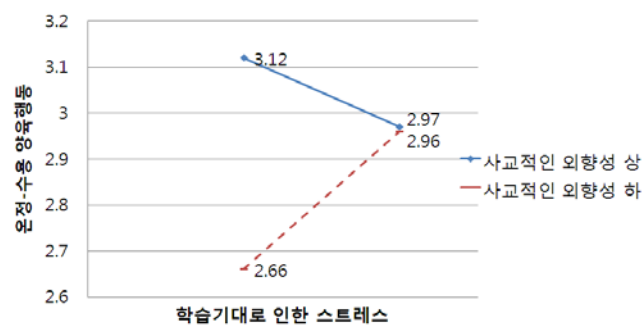


그림 1. 온정·수용 양육행동에 대한 학습기대로 인한 스트레스와 사교적인 외향성의 상호작용 효과

으로 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어머니의 학습기대로 인한 스트레스와 어머니의 사교적인 외향성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표 3 참조). 상호작용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림 1에서 보듯이, 어머니의 학습기대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을 때는 사교적인 외향성이 높고 낮음에 따라 온정·수용 양육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각각 $M = 2.97, SD = .52$; $M = 2.96, SD = .65, t = .13, ns$). 그러나 어머니의 학습기대로 인한 스트레스가 낮을 때는 사교적인 외향성이 높은 어머니($M = 3.12, SD = .59$)가 사교적인 외향성이 낮은 어머니($M = 2.66, SD = .69$)보다 온정·수용 양육행동을 더 높게 보였다($t = 2.81, p < .01$).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교적 외향성 및 활동적 외향성과 허용·방임 양육행동간의 관계

어머니의 허용·방임 양육행동을 종속변인

으로 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자녀의 기질로 인한 스트레스와 어머니의 사교적 외향성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표 4 참조). 상호작용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림 2에서 보듯이, 자녀의 기질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을 경우 사교적인 외향성이 높은 어머니($M = 1.82, SD = .39$)가 사교적인 외향성이 낮은 어머니($M = 1.71, SD = .40$)보다 경계선 수준에서 허용·방임 양육행동을 더 높게 보였다($t = 1.77, p < .10$). 그러나 어머니의 자녀의 기질로 인한 스트레스가 낮을 때에는 사교적인 외향성이 높고 낮음에 따라 허용·방임 양육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각각 $M = 1.73, SD = .37$; $M = 1.76, SD = .37, t = -.54, ns$).

한편 어머니의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및 학습기대로 인한 스트레스, 그리고 어머니의 활동적인 외향성은 어머니의 허용·방임 양육행동에 대해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를 나타내었다(표 5 참조). 이에 상호작용효과

표 4. 허용·방임 양육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사교적인 외향성의 위계적 회귀분석(β) ($N = 350$)

독립변인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학년통제	.12*	.12*	.12*	.11*
자녀의 기질로 인한 스트레스(A)		.01	.00	-.66*
사교적인 외향성(B)			-.02	-.34*
A x B				.61*
R^2	.013	.013	.014	.028
ΔR^2			.001	.027
F	4.71*	2.36	1.61	2.48*
(df)	1, 348	2, 347	3, 346	4, 345

* $p < .05$. ** $p < .01$. *** $p < .001$.

주) 학년통제는 더미변수화 함(5학년=0, 6학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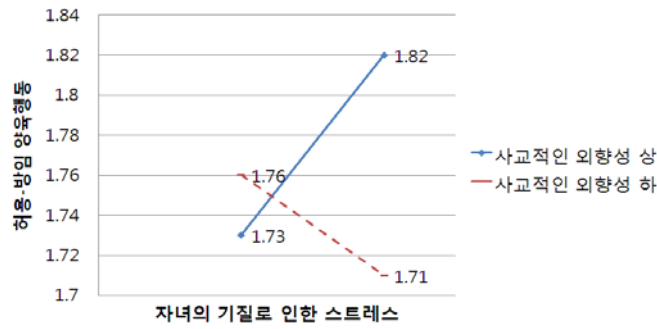


그림 2. 허용·방임 양육행동에 대한 자녀의 기질로 인한 스트레스와 사교적인 외향성의 상호작용 효과

표 5. 허용·방임 양육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활동적인 외향성의 위계적 회귀분석(β) ($N = 350$)

독립변인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학년통제	.12*	.12*	.12*	.12*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A)		-.02	-.02	-.87**
활동적인 외향성(B)			.05	-.51*
A x B				1.02**
R^2	.013	.014	.016	.04
ΔR^2		.001	.002	.038
F	4.71*	2.40	1.88	3.55**
(df)	1, 348	2, 347	3, 346	4, 345
학년통제	.12*	.12*	.12*	.12*
학습기대로 인한 스트레스(A)		-.06	-.05	-.70*
활동적인 외향성(B)			.05	-.26
A x B				.72*
R^2	.013	.016	.019	.032
ΔR^2		.003	.016	.016
F	4.71*	2.90	2.21	2.85*
(df)	1, 348	2, 347	3, 346	4, 345

* $p < .05$. ** $p < .01$. *** $p < .001$.

주) 학년통제는 더미변수화 함(5학년=0, 6학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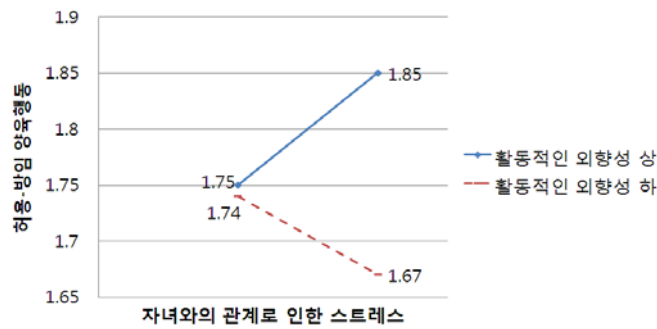


그림 3. 허용·방임 양육행동에 대한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와 활동적인 외향성의 상호작용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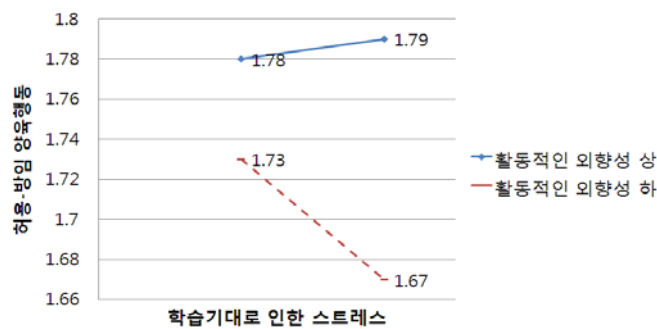


그림 4. 허용·방임 양육행동에 대한 학습기대로 인한 스트레스와 활동적인 외향성의 상호작용 효과

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그림 3 참조),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을 때는 활동적인 외향성이 높은 어머니($M = 1.85$, $SD = .36$)가 활동적인 외향성이 낮은 어머니($M = 1.67$, $SD = .41$)보다 허용·방임 양육행동을 더 높게 보였으나($t = 2.87$, $p < .01$). 그러나 어머니의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낮을 때에는 활동적인 외향성이 높고 낮음에 따라 허용·방임 양육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각각 $M = 1.75$, $SD = .40$; $M = 1.74$, $SD = .36$, $t = .89$, ns).

또한 그림 4에서 보듯이 어머니의 학습기대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을 때 활동적인 외향성

이 높은 어머니($M = 1.79$, $SD = .38$)가 활동적인 외향성이 낮은 어머니($M = 1.67$, $SD = .40$)보다 경계선 수준에서 허용·방임 양육행동을 더 높게 보였으나($t = 1.85$, $p < .10$), 어머니의 학습기대로 인한 스트레스가 낮을 때에는 활동적인 외향성이 높고 낮음에 따라 허용·방임 양육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각각 $M = 1.78$, $SD = .39$; $M = 1.73$, $SD = .37$, $t = .89$, ns).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교적인 외향성과 거부·제재 양육행동간의 관계

어머니의 거부·제재 양육행동을 종속변인

표 6. 거부·제재 양육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사교적인 외향성의 위계적 회귀분석(β) ($N = 350$)

독립변인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학년통제	.001	.01	.01	-.01
자녀의 기질로 인한 스트레스(A)		.17**	.12*	-.74*
사교적인 외향성(B)			-.12*	-.54***
A x B				.80**
R^2	.00	.028	.041	.065
ΔR^2		.028	.013	.052
F	.000	5.05**	4.88**	5.96***
(df)	1, 348	2, 347	3, 346	4, 345

* $p < .05$. ** $p < .01$. *** $p < .001$.

주) 학년통제는 더미변수화 함(5학년=0, 6학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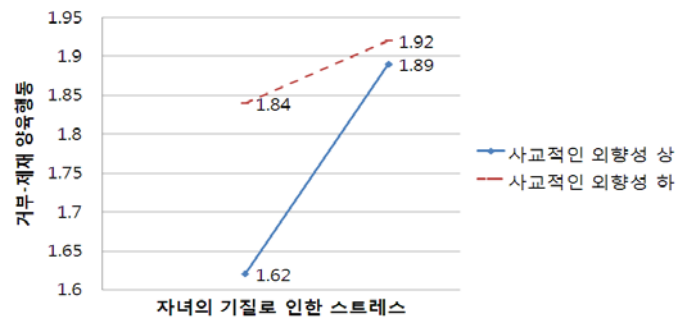


그림 5. 거부·제재 양육행동에 대한 자녀의 기질로 인한 스트레스와 사교적인 외향성의 상호작용 효과

으로 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자녀의 기질로 인한 스트레스와 어머니의 사교적 외향성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표 6 참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녀의 기질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을 때는 사교적인 외향성이 높고 낮음에 따라 거부·제재 양육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각각 $M = 1.89$, $SD = .52$; $M = 1.92$, $SD = .65$, $t = -.30$, ns). 그러나 자녀의 기질로 인한 스트레스가 낮을 때에는 사교적인 외향성이 낮은 어

니($M = 1.84$, $SD = .55$)가 사교적인 외향성이 높은 어머니($M = 1.62$, $SD = .47$)보다 거부·제재 양육행동을 더 많이 보였다($t = -2.91$, $p < .01$)(그림 5 참조).

IV. 논 의

본 연구는 초등학교 5~6학년 350명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성격 및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행동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한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이 어머니의 성격에 따라 중재되는지를 규명하는데에 주된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를 토대로 선행연구와 비교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연구문제 1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성격 및 양육행동 간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첫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온정·수용 양육행동과는 부적상관을, 거부·제재 양육행동과는 정적상관을 보여,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며,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거부하거나 제재하는 양육행동을 보인다는 선행연구들(김미숙, 문혁준, 2005; 신숙재, 1997)과 일치한다.

둘째, 어머니의 성격 중 신경증은 온정·수용 양육행동과는 부적관계를, 거부·제재 양육행동과는 정적관계를 보여, 어머니가 신경증이 높을 경우 보다 거부·제재적인 행동을 보였다. 한편, 어머니의 활동적인 외향성은 어떠한 양육행동과도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온정적인 외향성이나 사교적인 외향성이 높은 어머니들은 온정·수용 양육행동을 많이 보이는 반면, 낮은 어머니들은 거부·제재 양육행동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외향성이 높을수록 온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며, 신경증이 높을수록 거부하고 권위적인 양육행동을 보인다는 선행연구들(전현진, 박성연, 1999; Belsky et al, 1995)과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외향적인 어머니는 자녀에게 지시적이고 통제하는 양육행동을 보인다는 Smith(2010)의 연구와는 상반되는 결과

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어머니의 사교적인 외향성은 어머니의 사회성이 높을수록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행동을 보인다는 연구(박영애 외, 2002)와도 부분적으로 유사하다. 그러나 사교적인 외향성이 높은 어머니는 걸음마기영아를 대하는 태도에서 간섭적이고 지시적인 양육행동을 보인다는 연구결과(Kochanska et al, 1997)와는 상반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연구대상자의 연령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되기는 하나 다양한 연령대의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추후 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 나타난 사교적인 외향성의 영향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셋째, 어머니의 성격 중 신경증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반면, 사교적인 외향성이 높거나 온정적인 외향성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신경증이 높은 어머니는 쉽게 흥분하며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박성연 외, 1996) 양육스트레스를 더 느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어머니가 활동적인 외향성이 높을수록 일상적 스트레스는 낮으며, 자녀의 기질로 인한 스트레스는 높았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지만 활동적인 외향성의 특징에 일부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세영(1996)에 의하면, 활동성이 높은 어머니의 경우 자녀가 활동성이 높으면 원만한 부모자녀관계를 이루지만, 활동성이 낮으면 자녀에 대해 불만족을 느끼며 스트레스를 느낀다. 따라서 자녀와 사회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활동적인 외향성의 특징이 평상시 어머니의 전반적인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도움

이 될 수 있다. 활동적 외향성과 관련한 본 결과는 어머니의 성격과 자녀의 기질간의 조화가 양육행동과 관련이 있음을 재확인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문제 2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성격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성격보다 어머니의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온정·수용 양육행동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강압적인 양육행동을 보인다는 연구(신숙재, 1997)와 맥을 같이 한다. 한편, 단순 상관관계에서는 성격과 양육행동간에 유의한 관계가 많이 나타나는데 반해 예상과는 달리 어머니의 성격과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성격의 영향력이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아 성격과 스트레스간의 상호작용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연구문제 3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성격이 중재적 역할을 하는지 살펴본 결과, 신경증과 달리 외향성의 경우는 스트레스와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으며, 예상한바와 같이 특히 외향성의 하위요인에 따라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어머니의 학습기대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을 때는 사교적인 외향성이 높은 어머니와 낮은 어머니간에 온정·수용 양육행동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학습기대로 인한 스트레스가 낮을 때는 사교적인 외향성이 높은 어머니가 사교적인 외향성이 낮은 어머니보다 온정·수용 양육행동을 더 높게 보였다. 이러

한 결과를 통해, 사교적인 외향성이 낮은 어머니의 경우는 오히려 스트레스가 낮을 때보다 스트레스 높은 상황에서 자녀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학습기대로 인한 스트레스가 적은 상황에서는 특히 사교적인 외향성이 높은 어머니들은 학습과 관련한 다른 사람들과의 교체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자녀에게 보다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행동을 보일 수 있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외향성을 하위요인으로 세분화한 국내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본 연구 결과나 해석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어머니의 자녀의 기질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을 때 사교적인 외향성이 높은 어머니는 사교적인 외향성이 낮은 어머니보다 경계적 수준에서($p < .10$) 허용·방임 양육행동을 더 높게 보였다. 같은 맥락에서 어머니의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을 때 활동적인 외향성이 높은 어머니는 활동적인 외향성이 낮은 어머니보다 허용·방임 양육행동을 더 높게 보였다. 특히 자녀의 기질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은 것은 아동의 까다로운 행동특성을 의미하므로 어머니의 심리적, 신체적 에너지를 소진시켜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유발시킨다(박성연 외, 1996). 따라서 자녀의 기질이나 자녀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겪을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형성에 관심이 더 높은 사교적인 외향성의 어머니들은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탈피하고자 자녀와의 행동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허용·방임 양육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특히 활동적인 외향성이 높은 어머니

는 학습기대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허용·방임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보인 반면, 활동적인 외향성이 낮은 어머니는 학습기대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을 때는 활동적인 외향성이 높은 어머니보다 경계선 수준에서 허용·방임 양육행동을 덜 보였다. 이러한 본 연구 결과는 자녀와 관계를 형성하는데 관심이 많은 어머니는 사회적 지위를 형성하거나 새로운 자극을 추구하고 싶어 활동하는 어머니와는 다른 양육행동을 보일 것이라는 Kochanska와 동료들(1997)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또한 어머니의 자극추구 성격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다는 연구결과를(박현진 외, 2010) 뒷받침한다. 즉 에너지가 넘치며, 항상 바쁘게 생활하는 활동적인 성격 특성은 자녀 양육 외에도 본인의 사회적 지위나 활동에 관심이 높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자녀와의 관계형성을 위한 시간과 자녀양육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정도와 관련 없이 자녀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거나 묵인하는 양육행동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에 의하면 활동적인 외향성이나 사교적인 외향성 모두 어머니의 허용·방임 양육행동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그러나 사교적인 외향성은 자녀와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관심이 높은 특성이므로 자녀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는 허용하는 양육행동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 활동적인 외향성은 어머니가 사회적인 활동에 참여하는데 관심이 높은 특성이므로 자녀에게 덜 신경쓰고 방임하는 양육행동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예상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허용과 방

임을 구별하여 연구하지 않아 그 차이를 규명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허용적 양육행동과 방임적 양육행동을 구분하여 사교적인 외향성과 활동적인 외향성의 영향력을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넷째, 거부·제재 양육행동의 경우 스트레스와 사교적인 외향성간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 자녀의 기질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을 때는 사교적인 외향성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거부·제재 행동을 많이 보였으나, 자녀의 기질로 인한 스트레스가 적을 때는 사교적인 외향성이 높은 어머니가 거부·제재 양육행동을 훨씬 덜 보였다. 따라서 스트레스가 낮을 때는 사교적인 외향성이 높은 어머니는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접촉 기회를 통해 긍정적인 관계형성을 경험함으로써 자녀에게 부적절한 양육행동을 덜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나 성격이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상대적 영향력을 볼 때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어머니의 성격보다는 양육스트레스에 의해 더 잘 예측되었다. 둘째, 그러나 어머니의 외향적인 성격적 특성은 상당부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상호작용하여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어머니의 성격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간의 관계를 중재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어머니의 외향성을 세분화하여 3가지 구성요소(사교적인 외향성, 활동적인 외향성, 온정적인 외향성)로 세분화한 결과, 외향성의 각 요인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어머니의 성격과 양육행동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특히 여러 구성요인을 포함하는 외향적 성격의 경우 외향성의 하위 요인을 구분하여 연구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어머니의 성격을 지각하여 보고할 수 있는 연령인 초등학교 고학년의 아동만을 대상으로 양육행동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연령대의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격과 양육스트레스 모두 어머니의 보고에 의한 것이어서 보고자 편견이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본 연구의 대상자가 교육수준이 낮은 중·하류층이라는 점에서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이 본 연구는 어머니의 외향성을 그 구성요소를 구분하여 분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한 최초의 시도이므로 후속연구를 통해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함께 어머니의 성격, 특히 외향적 성격요인에 따라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간의 관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함으로써, 효과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영미 (2004). 어머니의 성취동기, 특성불안 및 자녀에 대한 신뢰가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문정 (2003).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과 아동의 행동문제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미숙, 문혁준 (2005).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3(8), 25-35.
- 김수진, 도현심 (2001). 부-모간 양육행동 (Coparenting)의 관련변인: 부부관계의 질, 어머니의 인성특성 및 아동의 초기 기질.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5), 101-114.
- 김현미, 도현심 (2004).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5(6), 279-298.
- 민경환 (2002). 성격심리학, 법문사.
- 박성연, 전춘애, 한세영 (1996). 아동과 어머니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따른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4), 203-215.
- 박영애 (1995).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 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박영애, 최영희, 박인전 (2002). 어머니의 성격 특성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3(2), 71-88.
- 박진성, 신현정, 박애순 (2008). 어머니의 사고양식,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 아동학회지, 29(30), 55-71.
- 박현진, 이주영, 문경주, 권정혜 (2010). 자녀의 기질, 어머니의 기질 및 성격이 양육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 15(1), 25-44
- 송현정, 김광웅 (2008). 놀이치료군과 비놀이치료군- 자녀관계, 성격특성 및 양육행동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1(4), 23-34.
- 신숙재 (199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 청구논문.
- 안영희, 김연화, 한세영 (2008).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성격특성 및 부모의 양육일치도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생활과학연구논총*, 12(2), 1-14.
- 안창규, 채준호 (1997). NEO- PI-R의 한국표준화를 위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9(1), 443-473.
- 전현진, 박성연 (1999). 부모의 아동기경험, 인성 및 결혼만족도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3(30), 96-106.
- 진순옥, 김영희 (2003).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성격특성과 훈육방식. *생활과학연구논총*, 7(2), 137-156.
- 한세영 (1996). 아동과 어머니의 기질적 부조화에 따른 어머니의 일상적 양육스트레스.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현정환 (2007). 한국의 부모자녀관계와 관련된 최근 연구동향과 과제. *한국보육학회지*, 7(1), 95-110.
- 황해익, 송연숙, 최혜진, 손원경 (2008). 영유아 · 아동연구에서의 SPSS 자료분석, 창지사.
- Abidin, R. R. (1990).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The stress of parenting.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9, 298-301.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Belsky, J., Crinc, K., & Woodworth, S. (1995). Personality and parenting: Exploring the mediating role of transient mood and daily hassles. *Journal of Personality*, 64, 905-929.
- Belsky, J. & Vondra, J. (1993). Development origins of parenting: personality and relationship factor. In Luster. T. & Okgaki, L. (Eds). *Parenting: An Ecological Perspective*. Hillsdale: Lawrence Erlbaum, 227-250.
- Caspi, A. & Shiner, A. (2006). Personality development, In N. Eisenberg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NJ: Wiley, 300-365.
- Clark, L. A., Kochanska, G., & Ready, R. (2000). Mothers' personality and its intervention with child temperament as predictor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 274-285.
- Costa, P. T. & McCrae, R. R. (1992). *Revised NEO Personality Inventory and NEO Five-Factor Inventory: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orida: PAR, Inc.
- Gomez, R, Gomez, A., & Cooper. A. (2002). Neuroticism and Extraversion as Predictors of Negative and Positive Emotional Information of Processing: Comparing Eysenck's Gray's, and Newman's Theories.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6, 333-350.
- Kochanska, G., Clark, L. A., & Goldman, M. S. (1997). Implications of Mother's Personality for

- their Parenting and Their Young Children's Developmental outcomes. *Journal of Personality*, 65, 387-420.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process and depressive symptomatolog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5, 102-113.
- Lee-Baggley, D., Preece, M., & DeLongis, A. (2005). Coping with interpersonal Stress: Role of Big Five Traits. *Journal of Personality*, 73, 1141-1177.
- Metsapelto, R. L., & Pulkkinen, L. (2003). Personality traits and parenting: Neuroticism, Extraversion, and Openness to experience as discriminative factors.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7, 59-78.
- Metsapelto, R. L., & Pulkkinen, L. (2005). The moderating effect of extraversion on the relation between self-reported and observed parenting.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6, 371-384.
- Schaefer, E. S (1965). Children's reports of parental behavior: An inventory. *Child Development*, 36, 413-424.
- Smith, C. L. (2010). Multiple Determinants of Parenting: Predict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Maternal Parenting Behavior with toddlers.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10(1), 1-17.
- Smith, C. L., Spinrad, T. L., Eisenberg, N., Gaertner, B. M., Popp, T. K., & Maxon, E. (2007). Maternal personality: Longitudinal Associations to Parenting Behavior and Maternal Emotional Expressions toward Toddlers.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7(3), 305-329.
- Suchman, N. E., & Luthar. S. S. (2001). The mediating role of parenting stress in methadone-maintained mother's parenting.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4(4), 285-315.

1차 원고접수 : 2011. 3. 21
수정원고접수 : 2011. 5. 18
최종게재결정 : 2011. 5. 25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Behavior: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Mother's Personality

Son, Young-Ji

Park, Seong-Yeon

Dept. of Child Development,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a mother's personality, maternal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behavior and to investigate whether the mother's personality (neuroticism & extraversion) has a moderating role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behavior. Data were collected from 350 5th-6th grade children and their mothers via questionnaires on parenting behavior, parenting stress and personality type.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were carried out for the purposes of data analysis. The results revealed that 1) Maternal parenting was predicted by parenting stress but not by personality, indicating that the more stress mothers perceive themselves to be under, the lower degree of warm parenting mothers exhibit. 2) The mother's personality, in particular, sociable or active extraversion, tended to moderate the association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behavior. Specifically, mothers with high sociable or active extraversion characteristics were likely to exhibit permissive and uninvolved parenting styles while under higher parenting stress. Moreover, mothers with high sociable extraversion characteristics exhibited lower rejective and restrictive parenting styles while under less parenting stress than lower sociable extraversion.

Key words : Maternal parenting stress, Parenting behavior, Personality, Neuroticism, Extraversion